

○ **외환리포트**

전일동향	전일대비 3.30원 하락한 1,224.70원에 마감
-------------	------------------------------

14일 환율은 전일대비 3.30원 하락한 1,224.70원에 마감했다.

이날 환율은 NDF 증가를 반영해 전 거래일 대비 4.90원 하락한 1,223.10원에 개장했다. 미국 물가지표 이후 인플레이션 정점 인식 영향에 갭다운 출발한 환율은 1,223원대로 하락 출발했으나 오전 중 외국인 배당금 관련 역송금 물량으로 추정되는 결제 수요에 1,226원 가까이 레벨을 높였다. 금통위의 기준금리 인상 이후 변동성이 이어진 가운데 장 후반에는 달러화 약세에 연동해 1,220원대 초중반으로 다시 레벨을 낮추었고 1,224.70원에 마감했다. 장중 변동 폭은 3.20원이었다.

한편, 이날 외환시장 마감시점의 엔-원 재정환율은 976.63원이다.

전일 달러 변동	시가	고가	저가	종가	평균환율
	1223.10	1225.80	1222.60	1224.70	1224.20

전일 엔화 변동	시가	고가	저가	종가
	976.22	978.90	971.59	972.48

전일 유로화 변동	시가	고가	저가	종가
	1336.71	1338.14	1317.18	1325.99

F/X(달러-원) 스왑포인트	1M	3M	6M	12M	
	보장환율(수출)	0.07	0.2	-1.27	-6.34
	결제환율(수입)	0.28	0.9	-0.19	-4.42

* 전일자 청약고객이 수취한 스왑포인트로 당일자 청약시에는 시장상황에 따라 변동
* 해당월 말일(영업일)까지의 스왑포인트 기준
* 자세한 사항은 환위험관리 지원센터 홈페이지(<https://www.ksure.or.kr/rh-fx/index.do>)에서 확인가능

금일 전망	글로벌 달러 강세 재개에...1,230원 회복 시도 예상
--------------	---------------------------------

NDF에서 환율은 스왑포인트(0.50원)를 고려하여 전 거래일 현물환 증가(1,224.70원) 대비 5.60원 상승한 1,230.80원에서 최종호가 됐다.

금일 환율은 연준 5월 50bp 인상론 재부각 및 지표 개선에 따른 국채금리 급등 등 강달러 영향에 1,230원 회복 시도가 예상된다. 존 윌리엄스 뉴욕 연은 총재는 50bp 인상이 합리적인 선택지라고 발언하면서 최근 진정세를 보였던 시장 긴축 우려를 자극했다. 미국 3월 소매판매는 전월대비 0.5% 증가하며 예상(+0.6%)을 하회했지만, 2월 수치가 기존 +0.3%에서 +0.8%로 상향됐

다. 미국 2년, 10년 국채금리는 해당 발언과 이와 같은 양호한 지표 결과에 두 자리 상승을 기록했다. 또한 유로화는 예상보다 덜 매 파적인 ECB 결과에 급락하면서 오늘 원화를 비롯한 아시아 통화에 하락 압력을 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수출업체 이월 네고 및 중공업 수주 물량 유입과 당국 미세조정 경계는 상단을 경직할 것으로 예상된다.

<p>금일 달러/원 예상 범위</p>	<p>1228.00 ~ 1233.00 원</p>
<p>체크포인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일 외국인 주식 매매 동향 : -2528.31 억원 ■ 뉴욕 차액결제선물환율(NDF) : 전일 서울외환시장 현물환 대비 5.60원 ↑ ■ 美 다우지수 : 34451.23, -113.36p(-0.33%) ■ 전일 현물환 거래량(종합) : 101.24 억달러 ■ 전일 외국인 채권매매 동향 : +4490 억원

주의사항

※본 리포트는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외부기관으로부터 획득한 자료를 인용한 것입니다.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